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리 문 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던 시기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44(1955)년 12월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합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조합의 공동재산을 애호하고 조합의 리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18권 364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방침은 농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키워 농업협동화를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농민

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농촌당조직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농업협동화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맞게 집단주의교양의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원리교양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집단주의원리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이 시기 우리 농민들의 뒤떨어진 사상의식수준상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 시기 일부 뒤떨어진 농민들속에서는 집단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있지 못한것으로 하여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실정은 농민들에게 집단주의란 어떤 사상이며 집단의 리익속에 자기 개인의 리익도 있다는것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인식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강연회, 해설담화, 좌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집단주의의 본질과 그 우월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집단주의사상을 원리적으로 체득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출판물들에《협동경리의 새 생활에 들어선 중화별》,《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증》,《협동경리는 개인경리보다 우월하다》,《우리가 갈 길은 협동경리의 길》,《공동로력의 기쁨》등의 기사들을 실어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였다.

평안남도 순안군 안흥리 안흥협동조합

(당시)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원리교양을 실생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협동조합의 한 일군은 일은 망탕 하면서 로력일을 많이 벌려는 속심으로 두벌김매기를 형식적으로 한 농민을 말아 교양할데 대한 분공을 받고 그를 찾아가 김매기작업을 잘하여 조합의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우리들에게 차례지는 분배몫도 많아진다는것, 그러니 그런 개인리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데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의 꾸준한 교양으로 마침내 그 농민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으며 집단의 리익속에 자기자신의 리익도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개성시 개풍군 삼달농업협동조합(당시) 초급당조직에서도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진행하였다.

초급당단체에서는 학습망을 통하여 농민들속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적리익과 사회적리익의 호상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강사들은 조합원들에게 분배원칙과 밀접히 결부시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생산물은 우리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는것이며 우리들의 로동은 전적으로 자기와 전사회를 위한 로동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집단주의사상을 자기자신의 실생활과 결부하여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교양사업을 통하여 농업협동화의 우월성을 옹호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도 있으며 공동의 재부속에 개인의 몫도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협동화운동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었다.

우리 당은 이와 함께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농민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우고 로동을 사랑하며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도록 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조합일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우리 당은 주체44(1955)년 6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들에서 생산 및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동정량을 옹호하게 제정하며 이에 기초하여 도급제를 광범히 도입하고 로력일평가 및 계산을 정확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속에서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은 농민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로력일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강동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당 분세포총회, 분조합회의 또는 작업반회의들에서 모든 협동조합원들이 공동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함경남도 정평군 소골농업협동조합(당시)의 당조직에서는 로동규률을 강화하고 작업질서를 세우는 한편 로력일평가사업을 매일매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정확히 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조합원들속에서는 로동에 대한 관점이 바로서고 조합일에 주인답게 참가하는 기풍이 서게 되었다.

농촌당조직들은 농민들이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절약하게 하기 위한 교양사업도 적극 밀고나갔다.

공동재산을 애호하도록 하는것은 농업협동조합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며 농업협동조합의 물질적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주체44(1955)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주체44(1955)년 6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원들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사회재산을 자기의것

처럼 애호하지 않거나 조합재산을 탐오, 낭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도록 하는 한편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워 모든 조합원들이 공동재산을 애호절약하게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취하였다.

농촌당조직들에서는 조합원들속에서 조합재산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랑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강서군 깨꿀농업협동조합(당시) 당조직에서는 당학습망에서 농업협동조합재산이 곧 자기들의 재산이며 조합을 물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밑천이라는것을 알려주어 공동재산을 애호관리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였다.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리(당시) 당조직에서는 농장원들속에서 공동재산을 애호절약하지 않고 되는대로 관리하며 낭비한 현상들과 투쟁을 벌리는 한편 공동재산취급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취하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에서는 공동재산관리에서 발휘된 모범을 적극 내세우고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 농장원들속에서 조합재산을 주인답게 관리하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농촌당조직들이 협동조합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한 결과 그들속에서는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농촌당조직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농민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집단주의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날카롭게 진행한것이다.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조합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나타나는 개인리기주의적현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평안남도 순안군 상양농업협동조합(당시)에서는 조합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날카롭게 진행하였다.

조합에서는 일부 농민들이 협동경리의 공동재산을 애호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즉시 총회를 열고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총회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공동재산을 애호하지 않으며 공동로동에 불성실한 사실들에 대하여 비판들이 진행되었다.

결과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던 일부 농민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으며 조합의 내부질서와 규률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다.

강원도 법동군 상서리당위원회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속에서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 조합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즉시 조합원총회를 소집하고 사상투쟁을 벌리었다. 총회가 있는 후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더욱 높아져갔으며 각성된 조합원들은 조합경리발전에 저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사소한것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투쟁하게 되었다.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은 량강도 운흥군 모정리당위원회,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리당위원회, 평안남도 속천군 검산리당위원회, 평안북도 창성군 내옥리당위원회, 평안북도 염주군 내중리당위원회 등 각지 농촌당조직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이처럼 우리 당은 사상투쟁을 통하여 농민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집단경리발전에 지장을 주는 주인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현상 그리고 자유주의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 개인리기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인 현상들을 뿌리빼고 농민들을 철저히 각성시켜나갔으며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농촌당조직들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긍정감화교양방법의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도록 한것이다.

긍정감화교양방법은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2월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시여 사람과의 사업방법 특히 긍정감화교양방법의 전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시기의 낡은 교양방법을 없애고 온 마을이 하나의 집단으로 단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리마기수들의 아름다운 미풍을 비롯한 긍정적모범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농민들이 그들의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교양사업을 널리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리 당은 긍정적모범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협동경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높여주고 그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모든 선전수단들을 동원하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농민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하기 위한 대중잡지로서 《농업협동조합》, 《선진농업》이 새로 발간되였다. 이러한 잡지들은 농민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

여 협동경리를 주인답게 관리운영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과 《근로자》를 비롯한 잡지들도 긍정적감화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농촌당조직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협동경리를 주인답게 관리운영해나가고있는 긍정적인 생활자료들을 광범히 소개선전하면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

강원도 창도군 창도농업협동조합(당시)에서는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집일에 신경쓰고 조합일에 잘 나오지 않던 한 농민에 대한 교양을 청산리사람들의 모범을 통해 진행하였다.

평안북도 의주군의 어느 한 농업협동조합에서는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밑에 긍정감화교양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조합의 선동원은 당보에 《오늘의 청산리사람들》이 실리였을 때 그를 통한 선동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설득력있게 진행한 결과 조합원들속에서 앞을 다투어 일을 찾아하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긍정감화교양방법은 더욱 심화되어 함경남도 신흥군 중평리당위원회, 강원도 법동군 상서리당위원회, 량강도 갑산군 평화리당위원회, 평안북도 염주군 남입리당위원회, 황해남도 연안군 발산리당위원회, 황해북도는파군 서종리당위원회 등 각지 농촌당조직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발전에서는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이것은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